

##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로 거듭나길

김승현 문화일보 AM7 편집장

culture | art

올해로 해방 60주년을 맞아 국가적 차원의 '광복60년 기념사업' 이 도처에서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의 부족과 문화예술계 내부적인 갈등의 골로 인해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이라도 해방과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점검하여 희망과 감동이 살아있는 무대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내는 생각체계 '이데올로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 된지 만 60년이 된다. 이를 '다시 빛을 찾았다'는 의미로 '광복(光復)'이라고도 한다. 지금 '해방 60주년의 문화예술 기념사업'이라는 주제를 놓고 국무총리실 소속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기도 하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해방'과 '광복' 두 가지로 말하기에 안타까운 갈등이 숨겨져 있다. 바로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것 같다.

박영희는 경향과 문학집단 카프를 탈퇴하면서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문학이다"라는 멋진 전향의 수사로 이데올로기가 예술과 쉽게 어울릴 수 없는 대척점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이데올로기 성향을 갖고 있는 명작들이 얼마든지 있다. 단지 주제에 대한 예술적 고민과 작가적 경험의 치열함이 문제일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내는 생각체계다. 그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바로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가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지나쳐 아예 좌익과 우익, 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최근에 들어 그 이데올로기는 실용주의 앞에서 분명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생각체계인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은 미국과 구소련(舊蘇聯)이 벌인 냉전의 결과로 생각된다. 영국, 프랑스 선발 선진국과 독일, 일본 등 후발 선진국이 벌인 땅싸움의 결과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세계가 몰락한 뒤,

구소련과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고 총성 없는 전쟁 '냉전 (冷戰·cold war)'을 시작했다. 약소국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의 편에 들지 않으면 안됐고 그 결정이 한 반도의 분단, 내전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여기서 남한은 우파 쪽을, 북한은 좌파 쪽을 선택했는지, 또는 당했는지 모른다.

남과 북, 둘은 60년 동안 끊임없이 대립했다. 저쪽에서 '해방'이라는 말을 쓰면, 남한은 '광복'이라는 말을 썼다. '동무'라는 순 우리말을 저들이 즐겨 쓰자 우리는 '친구'라는 한자어로 대신했다. 분단 60년 동안 언어에서부터 생활풍습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은 모든 것에서 의도적으로 반대편에 섰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지구상에는 50여 개 나라 밖에 없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없어진 나라였다. 세계대전과 냉전이 끝난 뒤 200여 개에 달하는 가까운 나라가 새로 태어났다. 이들 나라 가운데 저개발의 두꺼운 지층을 뚫고 나온 유일한 나라가 남한이다. 그냥 저개발을 탈피한 수준이 아니라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부강'을 누리고 있다. 지나간 세월의 이데올로기, 식민지배 콤플렉스, 독한 형그리 정신도 다 털어 버리고 진보에서 보수로, 또 보수에서 진보로, 민족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민족으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자유롭게 유행할 때도 됐다.

### 국가적으로 진행중인 '광복 60년 기념사업'

이 같은 생각의 바탕에서 '광복 60년 기념사업'이 국가적으로 진행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광복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주체어를 '광복 60년, 새로운 시작'으로 정하고 정부와 민간 등에서 제안한 239개 사업 가운데 역점추진 사업 51개를 확정했다.

51개 사업은 광복 60년 기념 중앙경축식 및 부대행사 등 8·15 경축행사 관련 5건, 디지털시대의 가치창조여행, 한·유라시아 대장정 등 국제교류 한민족 네트워크 관련 6건, 북한대첩비 환수복원사업, 고구려 고분군 보존사업 등 남북통일 관련 5건, 선진한국 구축전략 종합포럼, 한류 아시아포럼 등 학술행사 12건, 효창공원 민족성지 조성, 독립운동사 대계 편찬 등 기념·선양 사업 8건 민주화 산업화 대전-광복 60주년 기념전시회, '베를린

에서 DMZ까지' 등 문화예술행사 9건, 사이버 광복군 결성 및 활동 지원 등 여성·청소년 관련행사 6건이다.

51개 사업 가운데 엄밀하게 말해 '베를린에서 DMZ까지' 등 문화예술행사 9건을 광복 60주년 기념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경축식, 학술행사, 독립운동사 대계 편찬과 같은 기념사업도 어떤 의미에서건 문화예술 기념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주요 기념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토대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독립운동사 대계'가 2009년까지 발간될 예정이다. 의병운동부터 계몽운동, 3·1운동 등 부문별로 편찬, 발간하고 독립운동사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 등 항일독립운동 열사들의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을 민족성지로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성역화 사업계획을 수립, 착수하는 동시에 중국 임시정부청사 순례 등 국내외 항일운동 유적지 답사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겨레문화 창의단'이 방송인 김미화 씨를 명예단장으로 해 7월 14일 출범했다. 이들은 16일 중국 연변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사할린, 멕시코, 쿠바 등 8개 지역에 파견돼 한인 1, 2세대 증언 녹취와 기록, 전통문화, 공동체놀이, 현지문화체험 등 문화교류, 의료, 건축, 영정사진촬영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창의단원은 또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러시아인, 고려인 청년들과 함께 국산 지프형 승용차를 타고 시베리아 대륙 1만 3,000km를 횡단한 뒤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한·러 유라시아 대장정'을 벌인다. 자동차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의단원은 또 8월 중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교포 청년 100명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뒤 '한민족청년미래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는 이와 함께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단기적으로 올해 고구려 고분 63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 유물을 보존, 전시할 예정이다. 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고분 보존상태를 확인, 보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011년까지 장기적으로 고분 인근에 모형고분을 축조, 내부에 벽화를 복원할 예정이다. 또 민주화와 산업화의 60년 성과를 재조명하는 민주화·산업화 대전-광복 60년 기념전시회를 8월 14일부터

올해 일반의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해방 또는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이다.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TV드라마가 잇따라 방영되는 등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앞에 '광복 60년', 또는 '해방 60년'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

## Independence

2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류 크루즈를 띄워 선상 평화음악회, 역사·문화강연, 학술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기로 했다. 첨단 디지털 장비로 무장된 청소년들을 세계 각 국에 파견해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홍보하는 디지털유목청소년 프로젝트, 세계 석학들의 토론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 통일시대에 대비한 비무장지대(DMZ) 종합연구 프로젝트, 대한민국 과학축전, 세계청소년 자유·독립영화제, 여성문화축제 등도 연중 계속된다.

### 다채롭게 펼쳐지는 기념행사 및 전시회

그러나 이와 같은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부실한 준비' 속에 '관 주도의 일회성 행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는 200여건의 국민제안을 받아 11건에 대해 우수 제안상까지 줬으나, 이 가운데 단 3건만을 51개 주요 추진사업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지난달 광복 60년 기념사업에 예비비 99억 6,600만원을 지출키로 했는데 추진위는 중앙경축식과 전야행사, 부대행사 등 광복절 당일 행사비로 전체 경비의 절반가량인 48억 5,000만원을 배정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60돌을 기념한다면서 60돌이 되는 해에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제안이 구색 맞추기에 그치면서 각 부처 사업들에 예산만 나눠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출범초기 기념사업이 정치색에 오염됐다는 비판도 제

기됐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적인 행사는 6월 15일 서울 올림픽미술관에서 시작, 11월 부산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베를린에서 DMZ까지>전이다.

이 전시회에는 '통일·평화'를 주제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를 비롯한 20인의 국내작가 및 프랑스작가 테오도로스 등 37인의 세계 유명작가의 작품이 출품됐다. 전시에서 역시 가장 화제를 모은 작품은 백남준 씨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신작 <베를린에서 DMZ까지>로 이 작품은 남북 합의에 따라 수거한 대북 선전용 스피커의 전원 공급기를 사이에 두고 DMZ의 영상과 베를린 장벽의 영상을 담은 두 대의 화면을 마주보도록 설치했다. 전원공급기에 그려진 드로잉과 여러 한글 단어들은 백씨 특유의 조형감각과 물감의 마티에르를 느끼게 했다.

<베를린장벽>전은 프랑스의 SVO아트(대표 실베스터 베르제)가 구 동독 쪽 장벽을 각국의 작가들에게 제공, 자유와 평화의 상징물을 의뢰해 구성한 컬렉션. 1992년부터 세계 순회전시 중이며 아시아국가로는 한국에서 처음 선보였다. 지난해 세종문화회관, 2003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유치하려다가 불발로 그친바 있다. 한국에서도 임옥상 전수천 이반 윤석남 등 6명이 SVO아트가 기증한 6점의 베를린장벽 조각에 평화의 염원을 담아냈다. 임옥상 씨의 <베를린에서 매향리까지>는 가장 논쟁적인 작품. 장벽 조각에 매향리에서 수거된 실제 포탄을 박아 넣고 '매향리는 행정적으로는 한국 땅, 실질적으로는 미국 땅, 가상적으로는 북한 땅이다'라는 문구를 휘갈겼다. 미군 사격장으로 피폐한 매향리 문제에 천착해 온 작가의 현실인식이 직설법으로 드러났다.



계문화창의단 발대식 장면

영국작가 데이비드 매쉬는 폐허 속에서 스멀스멀 다시 장벽 쌓기를 시도하는 자운동체 괴물인간을 내세워 평화를 파괴하는 억압은 언제든지 다시 태동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위대한 건축가〉), 스위스작가 존 암페더는 탈냉전시대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의 붕괴마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를 냉소적으로 표현했다(〈블루밍데일의 장벽〉).

〈통일염원〉전은 DMZ 대북심리전 장비를 이용한 전시. 지난해 6월 첫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서부전선에서 철거된 대북심리 장비들을 재료로 활용, 백남준 씨를 비롯해 최인선 이용백 강애란 장승효 박시동 등 20명이 작품을 만들었다. 박시동 씨는 60년대에 실제 사용된 대북 선전용 확성기와 만화 캐릭터 로봇 태권브이를 평화의 사도로 재탄생 시킨 비디오설치작업 〈힘〉을 통해 무기가 사랑과 화해의 수단으로 변신하는 유쾌한 상상력을 보여줬다. 강애란 씨는 남북한의 어린이들이 체제선전용 웅변대회에 간간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서로 번갈아 가며 보여줌으로써 이데올로기의 허망함을 강조했다(〈프로젝트 가상 공간 DMZ〉).

이 전시는 말로만 들었던 세계적인 전시 〈베를린장벽전〉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데다가 백남준 씨와 같은 거장을 통해 해방 60주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분단60주년을 새삼 조명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문화적 축적물을 남기겠다는 애초의 방향과 달리 명분위주의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과 설치와 미디어 아트 쪽으로 전시내용이 치우쳤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한편 설치작가 전수천 씨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5,500km를 기차로 달리는 〈영원한 민족 비전의 선〉 프

로젝트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전씨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9박 10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11량 미국 초고속 열차 암트랙은 온통 하안천으로 몸체를 감싸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광활한 대륙을 횡단하며 흰색 선이 그려내는 드로잉으로 지구촌의 화합을 기원할 예정이다. 기차의 역동성과 미술의 예술성이 만나는 이 프로젝트는 13년 전에 구상됐다. 새 천년부터 본격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예산상의 문제로 두 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로부터 3억 원을 지원 받았고, 대기업 협찬도 긍정적이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대폭 줄여 13억 원으로 책정하고 미국 철도회사 암트랙과 3억 5,000만 원에 기차 사용계약까지 끝냈다.

### 관련 문화예술행사들과 그에 대한 기대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의 공식적인 문화예술기념사업 외에도 올해 일반의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해방 또는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이다.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TV 드라마가 잇따라 방영되는 등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앞에 ‘광복 60년’, 또는 ‘해방 60년’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 기념사업추진위의 사업 가운데 7월 현재 가장 주목할 사업이 미술전시이듯 일반 기념사업에서도 전시가 가장 두드러진다. 해방 또는 광복 60년이라는 의미에 요즘 유행하는 회고의 취향이 맞물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성적인 전시가 잇따랐다.

지난 4월 20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미술관에서 열린 민족사친가협회의 〈시대와 사람들〉전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해방 60주년 문화행사 중 전시 분야에서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은 사진전이였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경제개발기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60년사를 담았다. 굵직한 사건에서부터 자잘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사진을 한데 모은 이 전시에는 임응식 임석제 이형록 정범태 홍순태 주명덕 김기찬 오상조 오형근 이갑철 인효진 방병상 등 작고작가·원로·중진·신인 56명의 작품이 나왔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마다 그 장면이 찍히던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는 없었더라도 한국인이자라면 한 눈에 알아볼 너무나도 익숙하고 낯익은 이미지들이 나왔다. 특히 중·장년, 노년층들은 뗏자욱이 꼬질꼬질한 풍

해방 60주년 기념 문화예술행사는 반환점을 막 돌아 8월 광복절을 정점으로 향해 치닫고 있다. 해방 또는 광복의 한 감자를 지나는 경사스런 해에 이런 불신의 간극을 넘는 감동의 대화합 무대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Harmony

경 앞에서 추억에 젖었다. 경희대는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로비 전시장에서 광복 60주년 기념 <아! 대한민국 COREA>라는 서양 고지도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희대 혜정박물관(관장 김혜정)이 소장한 고지도 가운데 한국의 국호, 형태변화, 북방영토,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 동해 등과 관련된 서양 고지도 38점이 전시되고 있다.

음악회로 가장 주목을 모으는 것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씨가 이끄는 서울시향이 8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여는 <광복 60주년 기념음악회>.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고문이 악단 출범 후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고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가곡 <그리운 금강산> 등을 들려준다. 또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과 강준일 작곡의 <사물놀이 협주곡> 협연도 있다. 또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이정원, 베이스 손혜수 등도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아마추어들의 노래 경연무대인 KBS 1TV 전국노래자랑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광복절인 8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려 흥미를 끌고 있다. 도쿄공연은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요청으로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출전 대상은 재일 교포다. 이 공연은 추석 연휴인 9월 19일 방송될 예정이다. 또 8월 15, 16일 이틀 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제3회 대구 아리랑제에 8·15 남북공동 문화행사차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예술단이 출연한다.

제주의 제2회 바람예술축제 <決7호 작전>이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일본군 전적지가 산재해 있는 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 일대에서 열린다. 이 축제에는 300여 명의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일본

군 전적지인 송악산 진지동굴과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등지에서 바람과 관련한 설치·영상·뉴미디어·깃발예술 등을 선보인다. <決7호 작전>은 1945년 일본이 미군의 일본본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전개했던

작전 이름이다. 제2회 대관령 국제음악제도 광복 60주년을 기념,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8월 3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용평 리조트 등 대관령 일대에서 열린다. 이 축제에는 세계적인 작곡가 베자드 란즈바란 줄리아드 음대교수와 김진희 코넬대 초빙강사가 각각 작곡한 <깨어남(Awakening)>은 5일 개막연주회에서, <한 하늘(One Sky)>은 3일 비무장지대 특별음악회에서 초연 된다.

7월 현재 해방 60주년 기념 문화예술행사는 반환점을 막 돌아 8월 광복절을 정점으로 향해 치닫고 있다. 아직 전체적 평가는 이르다. 하지만 60주년을 확실하게 기념할 만한 감동은 아직 없었고, 앞으로도 큰 기대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체계적이고 사려 깊은 준비부족도 있겠지만 '해방'과 '광복'에 대한 용어 정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화예술계 내부적으로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까닭이다. 그래도 해방 또는 광복의 한 감자를 지나는 경사스런 해에 이런 불신의 간극을 넘는 감동의 대화합 무대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국내 기업의 '애국심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작된 광고 사진